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c.net

주일오전설교

자발적 선행

[빌레몬서 8-10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16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던 것 같으나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보인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사도로서 무슨 선한 것을 명할 수 있겠으나, 그는 명하지 않고 사랑을 인하여 간구한다. 많은 세월을 주를 위하여 수고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나이 많은 그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는 그 간구를 빌레몬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1-14절]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를 받으라(전통본문). 저는 내 심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오네시모’라는 원어는 ‘유익한’이라는 뜻이다. 오네시모는 이전에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지금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이었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익한 자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자이다. 과거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이었으나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었다. 노예제도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다. 출애굽기 21:21, “좋은 주인의 금전이라.” 오네시모는 이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고 있다. 전통사본에는 ‘돌려보내노니’라는 말 다음에, “저를 받으라”는 말이 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부탁한다. 과거에 오네

시모가 한 일을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이 노사도의 부탁이니 빌레몬은 그를 받아들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곧 이어 ‘그는 내 심복이라’고 표현한다. ‘심복’이라는 원어(스플랑크나)는 ‘창자, 마음, 심정’ 등의 뜻이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며 사도 바울을 위한 충성된 수종자가 되었고 바울도 그를 진심으로 아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에게 계속 머물러 두어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수종드는 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려고 했다.

바울은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한다. 본질은 본서신에 계시된 중심 교훈이라고 보인다. 그것은 자발적 선행이라는 교훈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필요한, 바울이 아끼는, 충성된 조수이었으나, 바울은 그의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일도 주인의 승낙 없이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의 승낙 아래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던 것이다. 바울은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되게 하기를 원했다. 억지로 하는 선행도 선행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 선행을 기뻐하신다.

[15-16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게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온 종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잠시 주인을 떠났었으나, 이제 이 일을 인하여 빌레몬은 그를 영원히 두게 되었다. 오네시모는 그에게 100년의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형제가 되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얻게 된 일이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들이며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다.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 종 이상이며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되었다. 바울에게 그러했다면,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에게는 더 그러할 것이다. 여기에 노예제도의 변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의 노예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회제도의 개선이든지 혁명은 바람직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본다. 혁명이 언제나 더 나은 사회의 보장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 사회의 개선을 원하셨다. 사회개선을 위하여 먼저 주인들, 윗사람들, 가진 자들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랑하는 형제 관계가 되게 하셨다.

[17-19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친구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빛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 좋게 말한다. 그는 빌레몬에게, 내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나처럼 영접하라고 부탁한다. 바울이 주 안에서 형제로 귀히 여기는 오네시모를 그의 친구 빌레몬이 어떻게 외면하거나 박대할 수 있겠는가? 주의 사랑하는 종을 영접하는 것이 주를 영접하는 것이듯이, 바울의 사랑하는 조수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곧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까지도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말한다. 바울은 친필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진 빛이 있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말에 대해 그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에게 빛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말한다. 그것은 영적인 빛 곧 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 그것은 결코 돈보다 못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금은보석들보다 더 귀하며, 그 말씀의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다.

[20-21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은 주 안에서 바울의 형제이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바울의 선한 뜻을 행함으로 그로 하여금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게 해야 할 것

이다. 이것은 오늘날 진실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소원이다. 그들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소원한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말을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말한다. 오늘날 동역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목사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하기? 진실한 목사들은 어디에 있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또 목사의 가르침보다 더 행할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좋은 목사들이 많이 있고,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한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자기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줄 것을 그에게 부탁하고, 그들의 기도로 그가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거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할 일이지만, 바울이 옥에서 나가 끌로새로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잠 16:1, 9).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잠 3:6).

[23-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과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은 주 안에서 귀한 말이다. 주의 피로 구속(救贖)받은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 원하며, 또 필요하다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옥에 함께 갇히기도 원한다.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영광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오네시모는 죄인이었고 무익한 종이었으나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변회되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무익한 자이었으나 구원 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유익한 자가 되었다. 구원은 죄인을 유익한 자가 되게 한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무익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에 쓰이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것은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의 빛진 것을 탐감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 안에서 주인도 종도 형제지매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지매로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교제해야 한다.

셋째로, 바울은 빌레몬의 선행이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이게 되기를 원하였다. 구원의 목표는 선한 삶이고 선행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예배도 찬양도 헌금도(고후 9:7) 봉사도 그러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유다와 다말**

[창세기 38:1-5] 그 후에[그때에](KJV, NASB, NIV)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라.

유다의 제안으로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일이 있은 후,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취하여 동침하였다. 유다는 요셉과 나이 차이가 약 7-8년이었으며 그때 약 25세이었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엘, 오난, 셀라를 낳아 주었다.

[6-8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러 해(20여년)가 지나,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 다말을 아내로 얻어 주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는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고 말했다. 옛날부터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수혼(嫂婚) 관습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후에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었다(신 25:5). 이것은 형제의 대(代)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신 25:6).

[9-11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泄精)[사정 射精]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守節)하고[과부로] 네 아버지 집에 있어

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둘째 아들 오난은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정액을 땅에 배설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守節)하고[과부로] 네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그가 막내 아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다말은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을 것이다.

[12-14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흑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딘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얼굴 가리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딘나 길결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유다는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연속하여 불행한 일들을 당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고 아내도 죽었다. 그것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그의 악한 제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을 것이다.

유다는 아내가 죽고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딘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딘나에 올라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 가리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딘나 길결 에나임 문에 앉았다. 그것은 유다의 막내 시동생 셀라가 다 컸지만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함이었다.

[15-16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걸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子婦)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다말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는 그를 창녀로 여겼고 길걸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들어가기를 청하였다. 그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했다. 비록 아내가 죽은 후이긴 하지만, 유다는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사람

의 본성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셨다(고전 7:1-9). 결혼 제도는 사람이 음행을 피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잠언 5:18-20,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죽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이야,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17-19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렇게 성 매매가 이루어졌고 다말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 들어갔지만, 그것은 만일 그가 며느리인 줄 알고 행했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된 일이었다. 레위기 20:12는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나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말한다. 유다는 심히 부끄러운 실수를 하였다. 그것은 유다의 생애에 큰 오점이었다. 그러나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징벌이었던 것 같다.

[20-23절]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니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나 그의 친구는 창녀와의 동침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양심은 부부의 사랑의 표인 성 관계의 본래의 가치를 저버리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고 있다.

[24절] 석 달쯤 후에 흑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행음이 용납할 수 없는 큰 악임을 알고 있었다.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딸

이 행음하면 그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셨고(레 21:9), 또 처녀가 그 아버 집에서 창녀처럼 행음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이라고 말씀하셨다(신 22:20-21).

[25-26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성 관계를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으나, 유다가 다말에게 수절을 요구하면서 그의 막내아들 셀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은 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다. 유다는 다말의 잘못보다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고 깨달았다.

[27-30절]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해산하였고, 룯기 끝에 보면, 그의 아들 베레스는 경건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룯 4:18-22).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유다의 만아들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하였고 둘째 아들 오난도 그러했다. 다말의 행위도 매우 악했고 유다의 행위도 심히 부끄럽고 죄악된 일이었다. 유다의 기정은 연약하였다. 사람은 다 죄악되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죄성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로마서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둘째로,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 그의 아내의 죽음, 유다 자신과 그의 며느리의 죄악된 임신 등은 다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보인다. 유다의 기정의 불행은 20여 년 전에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본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잠 1:7; 9:10).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사 66:2).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유다를 사용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다. 비록 유다도 다말도 연약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룯 4:18-22; 마 1:3).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패치 않고 진행되고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마 6:10).